

듀스에 또 듀스... 진화하는 페퍼스, 딱 1점이 부족했다

흥국생명에 1세트 따내며 분전
모든 세트 접전 끝 1-3 패배
31개 범실 쏟아내 아쉬움
엘리자벳에 공격 58% 집중 '부담'

페퍼저축은행 vs 흥국생명 경기 기록 비교

페퍼저축은행	팀명	흥국생명
패	승패	승
79점	득점(공+블+서)	74점
64개(38.79%)	공격성공(성공률)	64개(42.95%)
10개(2.50개)	블로킹성공(세트당)	6개(1.50개)
57개(1.25개)	서브성공(세트당)	47개(1.00개)
61개(15.25개)	세트성공(세트당)	61개(15.25개)
44개(10.00개)	리시브정확(세트당)	30개(6.25개)
80개(20.00개)	디그성공(세트당)	84개(21.00개)
31개	범실	21개
10개	범실(20점 이후)	5개

(KOVO 제공)



AI페퍼스가 진화하고 있다. AI페퍼스는 최근 흥국생명에 맞서 한층 성장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올 시즌 2번째 세트를 따냈다.

AI페퍼스는 지난 2일 페퍼스타다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상대했다. 세트스코어 1-3(23-25, 23-25, 27-25, 28-30).

흥국생명은 비록 김연경·이재영·이다영 등 스타 플레이어가 빠지면서 '약체'로 분류됐으나, 프로 리그 16년 경력과 '코트의 여우' 박미희 감독의 지도력으로 무장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하지만 AI페퍼스는 지난 3경기에서 지적받았던 '뒷심 부족'을 극복하고 끈질기게 점수차를 줄였다. 3세트에서는 3점차로 뒤져졌으나 27-25, 대역전극을 펼쳤다. 다른 세트에서도 모두 2점차로 어렵게 패배하는 등 전보다는 성장한 모습이었다.

AI페퍼스는 이날 79득점을 기록해 흥국생명(74득점)보다 더 많은 공격을 성공시켰다. 엘리자벳은 43득점을 올려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경현과 하혜진도 각각 12득점, 9득점씩 꾸준한 점수를 올리며 든든히 뒤를 받쳤다.

수비도 탄탄했다. 이날 AI페퍼스는 블로킹 10번을 성공시켰다. 흥국생명은 6번에 그쳤다. 하혜진과 엘리자벳은 각각 유효블



지난 2일 페퍼스타다움에서 열린 AI페퍼스와 흥국생명의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경기. AI페퍼스 엘리자벳(오른쪽)이 스파이크하고 있다.

(KOVO 제공)

로킹 11회, 7회로 튼튼한 수비벽을 세웠다. 성장한 모습, 발전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그만큼 한계도 드러난 경기였다.

승부는 '범실'에서 갈렸다. 이날 AI페퍼스는 31개 범실을 쏟아냈다. 흥국생명(범실 21개)보다 10개나 많았다.

특히 서브 범실로 허망하게 점수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31개 범실 중 무려 20개가 서브 범실이었다. 1세트에서는 서브 아웃만 5번, 3세트에서는 5번이나 네트에 맞았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도 착잡한 심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감독은 "경기에 앞서 서브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은 "다른 범실은 경기 경험이 짧고 어린 선수들이 컨디션 잘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지만, 서브 범실은 특히 문제다"며 "집중 연습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 자연스럽게 때려야 하는데 부담 갖고 때려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벳의 높은 공격 점유율은 양날의 검이다. 엘리자벳은 이날 충분히 실력을 발휘했다. 이현의 백토스에서

엘리자벳의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공격은 위력적이었다. 3세트에서는 박경현의 리시브를 곧장 오픈으로 연결해 득점하는 등 센스 있는 플레이도 보였다.

다만 이현은 세트 13회 중 58%인 76회를 엘리자벳에게 몰아줬다. 자연히 엘리자벳의 공격 점유율은 54.05%로 뛰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엘리자벳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감독은 "(공격에) 센터-레프트를 활용하려 했지만, 세트의 욕심이 컸다. 엘리자벳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다"며 "자신감의 문제다. (공격이 실패할까봐) 이현이 겁이 나는 모양이다. 이기는 습관을 들여줘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선수 기용이 여의치 않은 것도 큰 고민이다. 컨디션 난조 등 위기 상황에서도 뒤를 받쳐 줄 선수가 부족한 것이다.

이현은 신장 174cm로 블로킹을 기대하기 어려운 선수다. 하지만 교체 멤버인 구슬은 경험 부족을 지적받아 잠깐씩 코트에 얼굴을 비추는 데 그쳤다. 또 '기대주'였던 박사랑은 부상으로 복귀가 요원하다. 결국 이현이 세트로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

는 상황이다. 또 이한비는 이날 5득점, 공격 성공률 30.77%를 기록하는데 4번의 서브 범실을 저지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4세트에서 이한비를 빼고 박은서를 선발로 세웠지만, 박은서가 4세트 공격 성공률 22.22%를 기록하면서 결국 이한비로 다시 교체됐다.

김 감독은 "선수 구성에서 아쉽다고 해봐야 지난 일이다.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조직력을 살리고, 실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선수들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열심히 하는 자세, 화이팅 넘치는 모습은 변함없다"며 "안 된다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할 게 아니다. 젊은 선수들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나보다 낫다. 더 연습해 지금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AI페퍼스는 5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6차전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26년 만에 우승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4승 2패로 휴스턴 제압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6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3년의 백리거 활동 기간 중 21년을 애틀랜타에서 서민 뛰고 올해 1월 86세를 일기로 타계한 전설의 흥망왕 헝크 에런이 하늘의 별이 된 해에 축배를

들어 더욱 각별한 이야기거리를 남겼다. 내셔널리그 챔피언 애틀랜타는 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벌어진 WS 6차전에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7-0으로 완파했다.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거둔 애틀랜타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그레그 매덕스, 톰 글레빈을 앞세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4승 2패로 제압하고 우승한 1995년 이래 26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애틀랜타는 전신인 보스턴 브레이브스

(1914년), 밀워키 브레이브스(1957년) 시절과 1995년에 이어 구단 통산 4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 삼패인을 떠뜨렸다.

2년 만에 WS에 올라 2017년에 이어 통산 두 번째로 WS 우승에 도전한 휴스턴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WS에 진출한 역대 최고령 두 번째 사령탑인 더스티 베이커(72) 휴스턴 감독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이끌던 2002년에 이어 이번에도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아 무관의 한(恨)을 풀지 못했다. 이날 선제 석 점 홈런을 포함해 이번 시리즈에서 타율 0.300에 홈런 3방, 6타점을 수확한 강타자 호르헤 솔레르는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KIA 멧텐·정해영, 10월 월간 MVP 도전

멧텐, 5경기 3승·평균자책 1.76
정해영, 15경기 등판해 12세이브

KIA 타이거즈의 멧텐과 정해영이 '특급 선발'과 '미스터 제로'로 10월 월간 MVP에 도전한다.

KBO가 3일 10월 월간 MVP 후보 6명을 발표했다. 10월 한 달 5경기에서 30.2이닝을 소화하며 1.76의 평균자책점을 찍은 선발 멧텐과 10월 15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을 펼친 마무리 정해영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던 멧텐은 시즌 막판 불꽃을 태웠다.

5경기에 나온 멧텐은 1.76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수확하면서 평균자책점 3위, 승리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롯데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올 시즌 개인 최다인 7.1이닝을 소화하는 등 마지막 3경기에서는 19.1이닝 1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였다.

고졸 2년 차 정해영의 10월도 눈부셨다.

정해영은 15경기에 나와 15이닝을 소화하면서 단 한 명의 주자도 홈에 들어보내지 않았다. 11개의 탈삼진을 더해 12개의 세이브를 적립, 이번 시즌 월간 최다 세이브 기록을 만들었다. 12세이브는 KBO리그 월간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2000년 6월 진필중, 2001년 5월 위재영)이기도 하다.

또 10월 20일 광주 KT전에서 시즌 30번째 세이브를 장식하면서, 20세 1개월 27일이라는 KBO 최연소 30세이브 기록도 만들었다.

정해영은 올 시즌을 34세이브로 마무리하면서 삼성 오승환(44세이브), 롯데 김원중(35세이브)에 이어 세이브 부문 3위에 올랐다.

투수 미란다(두산), 이인복(롯데), 알테어(NC)와 전준우(롯데)도 월간 MVP 후보로 선정됐다. 미란다는 10월 한 달 40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며 1984년 롯데 최동원이 작성한 한 시즌 223탈삼진 기록을 넘어 225탈삼진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KBO 탈삼진 역사에 이름을 남긴 미란다는 10월 평균자책점도 1.78로 3위에 오르는 등 두산의 포



멧텐

정해영

스트시진 진출에 힘을 보탤다.

이인복은 선발로 5경기에 나와 25이닝 동안 4자책점만 허용하는 쟁쟁투구를 선보이며 2승을 거뒀다. 10월 평균자책점은 1.44로 이 부문 1위다.

알테어는 27경기에서 7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내며 10월 홈런 1위를 찍었다.

8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최원준(12개)에 이어 월간 도루 2위도 기록했다.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보여준 알테어는 시즌 3번째이자, 통산 55번째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다.

롯데 전준우는 0.407로 타율 1위에 오르면서 9월(0.417)에 이어 두 달 연속 '4할 타자'가 됐다. 37개의 안타를 생산하면서 안타 부문 1위도 장식했다.

뜨거운 가을을 보낸 전준우는 시즌을 192안타로 마무리하면서 최다안타 1위에 랭크됐다. 타율은 0.348로 키움 이정후(0.36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편 10월 월간 MVP는 투표는 KBO 리그 타이를 스폰서인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더한 최종 결과는 9일 발표된다. 월간 MVP로 선정된 선수는 상금 200만원과 75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부상으로 받는다. 또 수상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원의 기부금도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